

남북관계를 더욱 나쁘게 만드는 정책

2주 전 통일부장관은 추석을 맞이하여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하려고 했으나 북한이 수신을 거절하여 남북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지문 내용은 시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상봉사업을 논의 하자는 좋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 상황 속에서 북한이 긍정적 화답을 할 것이란 기대를 얼마라도 갖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남북 간 정치적 현안을 떠나 우리 민족의 아픔과 슬픔인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그야말로 인도적 성격의 사업을 제안함은 당연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한 일을 추진함에는 상대방의 생각, 입장을 고려해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북한은 약을 올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로서야 이산가족상봉사업이 인도적 사업이지만 북한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정치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성사된 것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체제의 인정

■ 통일사색



이성원
남북체육교류협회 상근부회장

및 화해 불가침, 그리고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을 하자는 합의가 있은 후에 이루어졌고 이후 20차례 가까운 금강산 상봉도 우리가 대북 식량, 비료를 지원하고, 북이 화답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상봉행사가 가능하려면, 우선적으로 북과 대화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북이 본질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북한체제의 안전담보, 즉 한미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신뢰성 있게 담보하는 우리측 안이 준비되어야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얻을 것이다.

새로운 의제를 개발할 필요도 없다. 이제까지 북한이 주장하며 요구해 왔던 것들을 정리해 보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을

바르게 평가하면 북의 요구를 충족시킬 해답이 나올 것이며, 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이루어 북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물론 이산가족상봉 사업의 성사는 물론, 이와 더불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용한 기 상봉가족들의 만남이나 서신교환, 화상통화 등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생각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번영을 추구함은 국가의 본질적 존재 이유다.

우리가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안전담보 요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안보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이 오히려 한반도에 불안을 더욱 조성한다는 역설을 생각해야 한다.

1992년이나 2018년의 경험,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는 역사를 생각하자.

당분간 실시훈련에서 도상훈련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남북관계가 회복되면 핵문제 해결 논의는 물론,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난 극복의 기회도 될 것이며,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포함 활발한 남북 간 교류가 진전되어 평화로운 한반도가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 그리고 나(2)

■ 위영금의 시선



내고향만들기공동체 대표

‘무엇으로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오면 아직 무엇이라 이름하지 못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다.

이름을 불러주어야 본질도 바뀔 수 있다 생각하는 성숙된 사람이 해야 할 걱정을 떠맡아 이것, 저것 불러대는 나도 미숙한 사람에 불과하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늘 고민거리다.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남으로 내려온 사람에게 ‘실향민’이라 부르는 확실한 언어가 있으나,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억은 모호하다.

1998년 고향을 떠났으니 잊을 만도 하다. 사람들은 잊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는 더 이상 떠날 때 고향모습은 없다. 그럼에도 당시의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국가가 방치한 개인에게 남겨진 트라우마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증오가 엮ial려 현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지도 못하게 북한을 들여다보고 답해야 하는 북한학을 전공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실수다.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뭐지’ 하면서 솟구치는 내면의 물치를 알리고 북한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다.

얼마 전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빅마우스’를 보았다. 성실히 살고자 하였으나, 선택받지 못했고 결국 주인공이 어둠의 세계 빅마우스가 되었다는 결말이다.

때로는 절망으로 망가지고 싶은 생각을 한다. 망가지기는 쉬워 순간일 테지만 작은 선 하나를 넘지 못해 모대기는 사람에게 누군가의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도 있다.

위로는 못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상처를 줄 때도 있다.

될수록 멀리서 보고 작게 대화하면서도 무엇이든 분석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은 흔하게 만난다.

사회초년생에게 훈시하는 사람도 많다.

저마다의 경험과 희망을 건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과 행동까지 모든 것을 따라 배우라는 사람도 있다.

비와 바람을 이겨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인격을 갖춘 글과 사람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감사와 기쁨, 환희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단한 노력에도 나는 여전히 사회초년생에 불과하다. 남북이 만들어놓은 분단 77년이라는 불신의 장벽은 높고 견고하여,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뜨거울지라도 표현과 방법이 서툴기만 하다.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된 시선과 두려움의 눈빛을 보았다. 그래서 작은 의견을 내어도 묵살되기 쉽다.

다수의 원칙에 소수가 소외되는 틈새에 내가 있다. 그래서 무엇이 되려 하지만 무엇도 되지 못한 미숙한 어린이다.

무엇이 되기에 앞서 국가와 사회가 지워놓은 짐은 무거워 감당할 수 없다.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아름답게 부르며 좋겠다.

그러면 코드만 부여받은 국민이 아니라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시민이 될 것 같다.

한 사람이 행복함으로써 여럿이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통일을 논의할 때이다.

교회의 해악

■ 조현정의 오늘의 성찰



목사-예수살기 대표

그릇된 신앙이 빚어내 폐해, 또한 현재 세상에 끼치고 있는 해독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신앙은 신과 우주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확립하고, 그 관계에서 생기는 자신의 사명과 행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그 관계와 거기서 나오는 사명의 결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

종교적 불신과 신성모독이 아무리 큰 악이라 해도 미신은 그보다 더 큰 악이다. (플루타르코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구원,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우리에게는 외면적인 형벌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

그것은 신을 배신하는 정신 상태, 신성이 주어져 있으면서도 동물적인 욕망의 지배에

자신을 맡기는 정신 상태, 신을 눈앞에 보면서도 인간의 위협과 분노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선을 의식하는 조용한 기쁨보다 세속적인 명예를 좋아하는 정신 상태이다.

인간에게 그 이상의 파멸은 없다.

이러한 정신 상태, 뉘우칠 줄 모르는 인간이 무덤까지 가져가려 하는 정신 상태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레닌)

“영혼을 잃는다”는 것은 교회가 말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밀

림 속에 잘못 들어가 길을 잃고,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같은 장소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좁은 야육의 세계를 빙글빙글 도는 것이다.

고위 성직자 집단에 의한 교회 지배는 그것이 군주제이든 귀족제이든, 또는 민주제이든, 단순히 각 교파의 내부 질서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교회 자체는 언제나 전체적이다.

신앙의 계율이 근본적인 법칙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장하는 하느님의 의지의 수호자이자 해설자로서의 권리가 주어진 유일한 존재이므로, 이성도 학문도 전혀 필요 없고 굳이 사람들을 설득할 것 없이 지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직자 집단이 있게 마련이다. (칸트)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설

미국발 긴축, 기존 공식 넘는 대응 필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수로 자리매김

미국발 금융긴축이 다시 비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2일(한국시간) 3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3.25%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2.50%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 0.75%p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FOMC 위원들은 향후 전망을 가능할 수 있는 점도표에서 미국 금리가 올해 말 4.4%, 내년 4.6%까지 오를 것으로 제시했다.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것이다. 그러자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말까지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동안 고수했던 ‘베이비스텝(0.25%p 금리인상)’ 기조를 빅스텝(0.50%p)으로 상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말까지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p 안팎으로 더 벌어져 한국 경제에 고환율, 달러 유출 가속화 등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 전월대비 0.1% 오르며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일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6월(4.8%)보다 0.4%p 높여 5.2%로 수정 발표했다. 한층 비상한 자세로 글로벌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고통을 장기화가 우려된다. 유로화 약세 등에도 한·미간 금리 격차까지 벌어지면서 22일 1400원 선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의 고통환율이 미국발 조긴축의

1차 충격과라고 한다면 이런 긴축이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져 내년에는 안전자산인 달러의 2차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고통환율은 수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 물가를 압박하게 된다.

물세 미국 금리인상과 고통환율에 따른 외국 자본의 이탈 문제다.

최근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올 초 34%를 웃돌던 외국인 비중이 지난 15일 기준 30.39% 선까지 내려가 2009년 7월 13일(29.92%)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번 미 연준의 추가 긴축으로 외국인의 시총 비중 30% 선이 붕괴될 수도 있다. 외환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한미 통화스와프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자국의 엔비디아와 AMD사에 AI용 고성능 컴퓨팅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대중국 수출 금지를 내렸다.

특히 이번 수출 제재 대상에 품목은 물론 성능의 상한선까지 제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7개월째인 러시아는 21일(현지시간) 군 동원령을 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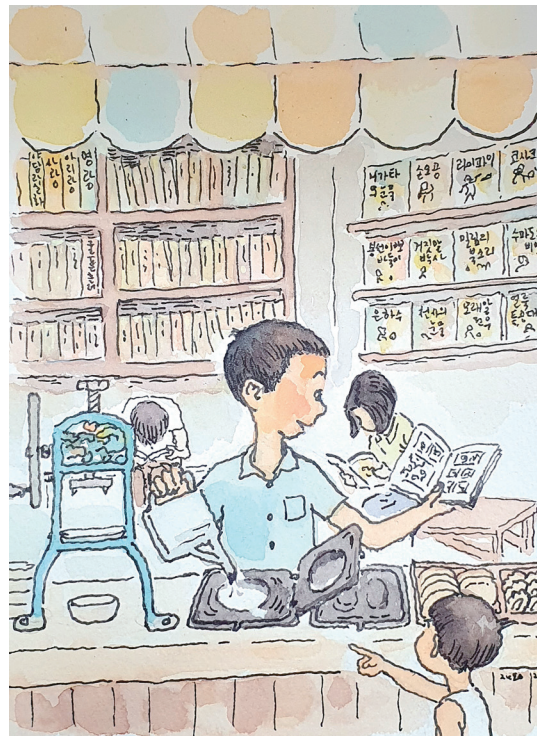
신냉전과 함께 ‘국제분업·자유무역’의 세계화가 와해되는 과정이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끝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세계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해 6월 ‘인플레이션-일시적(transitory)’이라고 했다가 5개월여 만인 11월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며 뒤늦게 조긴축에 시동을 걸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시계(視界)제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와 국민 모두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생존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만화 다섯 권으로 3학년 1학기가 지나갔을 때 삼촌이 내 손을 잡고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부산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며 데리고 갔다. 부산역에 내려자 차들이 많은데 놀랐다. 서서마를에서는 1년에 고작 몇 대를 봤는데 여가는 한꺼번에 다섯 대가 몰려다니는 게 아닌가! 저너 전봇대를 따라가서 멈춘 우리 집 문에는 ‘만소잡 화설지’라고 붙여 놓았다. 이게 뭐지? 하며 들어가 보니 세상에! 그렇게나 좋아했던 만화책이 천지 사방에 가득했다. 우리 집이 만화방이었던 것이다. 말로만 들던 보물섬이 여기로구나! 게다가 우리 집은 팔방수와 풀빵도 팔았으니 나는 만화도 실컷 보고 팔방수 풀빵도 실컷 구워 팔고 먹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이 되었다.

경기신문

www.kgnews.co.kr

제2창간 2022년 8월 26일
첫 발행 2002년 6월 15일

문화 가-00224(일간)

ISSN 2635-978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편집인 는 설 주 간	김 대 훈 심 흥 식	인 쇄 인 편 집 국 장	박 장 희 고 영 규	인 천 본 사 사 장 인천편집국장직대	이 한 성 정 민 교
-------------------	----------------	------------------	----------------	-------------------------	----------------

본사 : ☎ 16349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대표전화 : 031-268-8114

광고문의 : 전화 031-268-8330 팩스 031-268-8393

구독신청 : 전화 031-268-8335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 1,000원

수원본사 : ☎ 16702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대표전화 : 031-268-8645

독자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보내주시 원고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31-267-4459 / 팩스 031-268-8393 / e-mail opinion@kgnews.co.kr

※ 외부 기고는 경기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